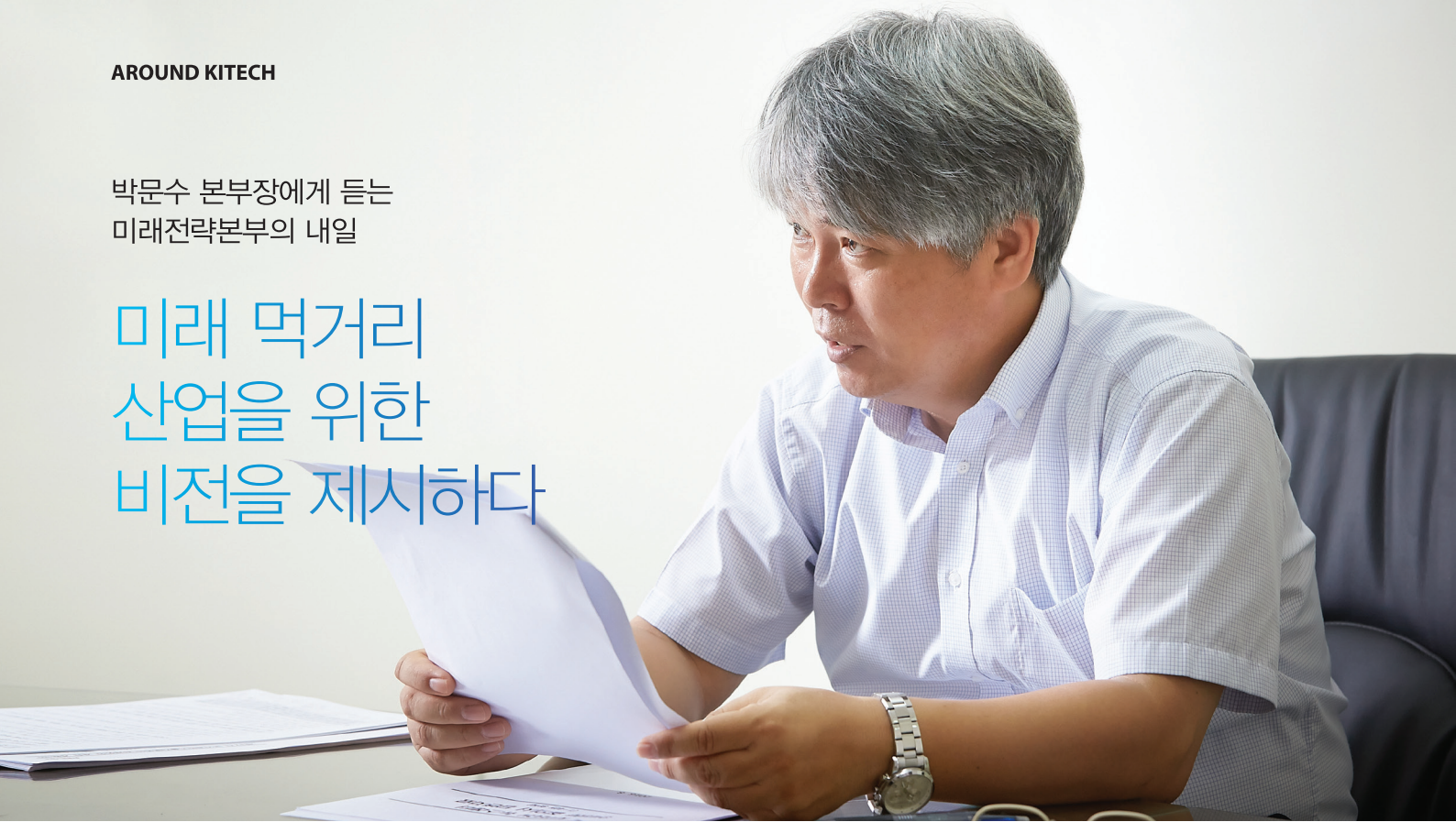


박문수 본부장에게 듣는
미래전략본부의 내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다



변화하는 시대. 하루가 다르게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됐다.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 생기원 미래전략본부는 앞날을 예측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유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렇기에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Q.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유망산업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신규 과제를 연구해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국내외 기술 및 산업, 정책 동향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정부 정책 보고서 및 기관의 대외 발표자료 등을 작성, 생기원이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부와 산업부, 중기청 등의 유관부처 및 기관과 기업지원 전략수립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TECH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도출함으로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미래전략본부가 기획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대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무엇보다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및 고용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젤형 기업(Gazelles Company) 육성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있죠. 가젤형 기업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20%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으로 중기청에서 선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비타민 기업발굴 및 육성사업'을 기관 대표 사업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기원의 경우 파트너기업이 약 3천4백여 개 정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기업들이 모두 탄탄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근간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죠. 기업이 든든하게 성장하려면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생기원 연구책임자가 기업과의 효율적인 현장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접점 프로그램인 'SME Solution Talk'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3회의 'SME Solution Talk'를